

장백산천지

제 32 호

2007 년 5 월 11 일

금요일



대법제자예술작품 《서약(誓約)》

작자 : 소평, 동석강, 여래
창작시간 : 2003 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몇사람이나 능히 깨달을 수 있을까? 뭇신들은 주불(主佛)을 따라 서약하고 내려왔다. 세상에 오기 전의 서언을 아직도 가슴속에 명기하고 있는지?

이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사숙고 하게 하며 생명근원(來源處)의 영원한 기억을 회고 하게 한다.....

<저도 대법제자가 될래요>

나의 집은 산동성 림류구에 있어요. 올해에 나는 15 세이고 동생은 6 세래요. 동생은 대뇌발육이 안되어 지력과 행동이 2,3 개월 밖에 안되는 애와 같고 말조차 하지 못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년에 와서 격동되거나 놀라면 늘 경련을 일으키곤 했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 보였지만 동생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대법제자인 나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내 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매일 파룬따파를 듣게 하고 다리를 틀고 앉아서 련공하게 했어요. 동생은 대뇌가 좋지못해 다리를 틀고 앉아있기 만했고 어떤 때는 손을 들어 한 두가지 동작만 할뿐이었어요. 이렇게 련속 2 개월 건지 했더니 내 동생의 병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공산악당의 독해를 많이 받아 파룬공을 믿지 않았지만 직접 목격한 이 사실 앞에서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지요.

나는 여기서 나의 동생을 구해준 존경하는 리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도 이제부터 대법제자가 되겠어요!

대사(大師)가 대법제자 되다

리유보(李有甫)는 중국무술계의 대사이며 인체생명 비밀연구원이며 특이공능으로 병을 치료한 신의(神醫)이다. 그러나 그는 10 년 전에 이미 모든 명리와 성취를 버리고 평범한 대법제자가 되었다.

리유보는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웠다. 문화혁명기간에 산서대학무술교수 진성보를 스승으로 모시고 10 년동안 각종 무술공법을 전통했다. 또한 진교수의 독특한 무술—산서 채찍을 계승하고 깊이 연구했다. 그는 1982 년 전국체육경기에서 길이 3 자 이고 손가락만 굵은 채찍으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일등했다.

리유보는 1987 년에 북경에 가 전학삼이 주관하는 인체과학연구에 참여했고 중국인체과학연구중심의 부연구원을 담임했다.

그는 선후로 북경적수담정원, 262 병원, 중국과학연구원민족연구소등 부문에서 무려 4 천명 환자들을 요시(遙視)공능으로 진단했는데 준확률이 거의 100%에 도달했다. 나중에 국가주석, 부장, 장군들마저 그를 요청해 병진단을 하고 나서 그의 신기한 공능을 크게 찬탄했다.

리유보는 높은 무술과 신기한 공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진정한 만족감을 갖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에서 인생의 참뜻을 깨우치려고 허다한 수불수도(修佛修道)의 법문을 시험해 보았지만 그 속의 기본내포가 전부 실전되어 아무리 련마해도 제고가 크지 못했다.

1996 년, 리유보는 끝내 리홍지사부님께서 전수한 고층차 수련방법을 찾았고 대법제자로 되었다. 미혹속에서 광명을 보게 된 리유보는 무척 감격되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제일 처음 <전법륜> 책을 손에 들고 단숨에 전부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반평생 찾고 찾던 답안을 마침내 얻었습니다.....수련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名利情(名利情)등 각종 집착심을 내려놓아야 공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련마한 것은 파룬공과 비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날 나를 대사라고 부른 것은 지금에 와서는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리유보의 영향을 받은 많은 중의와 무술계인사들은 파룬공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뒷면에 이음)

중국에서 변호사 6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파룬궁을 위해 변호

2007년 4월 27일 8시반, 하북성 석가장 중급법원에서 2심(二審)법정을 열어 파룬궁학원 왕박(王博)을 심판하였다. 북경 대리변호사 리화평, 러 웅병, 진림휘, 리순장, 등표, 오광위 등 6명이 중공의 금지구역을 돌파하고 당사자를 위해 정채로운 변호를 진행하였다.

론회이야기

한 비행사의 환생

60여년전, 21세의 미국비행사 제임스·M·쇼후스턴이 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일본 포탄에 명중되어 추락하여 사망했다. 1998년 제임스·레닌그가 루이즈애나주에서 태어났다.

제임스·레닌그가 태어나서부터 비행기놀이 외에는 크게 다른 놀이감에 흥취가 없었고 비행기구조에 대해 남달리 잘 알고 있었다. 대략 두 살때부터 꿈속에서 가끔 소리치며 깨어나곤 했다. 뭘 보았는가고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비행기가 불붙어 떨어졌어요. 누구도 빠져 나오지 못했어요.》《어디에 떨어졌니?》《물에 떨어졌어요.》《누가 떨어졌니?》《일본사람이에요.》 그는 해도호함선에 실은 한대의 전투기를 몰았는데 비행기는 《나뿔마호》 위에서 리륙했다고 하였으며 당시 그는 제크·라스 이라고 부르는 전우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2차세계대전 전투기포수(投炮手)인 라브·크라펠이 제임스의 말을 입증하였는데, 1945년 3월 3일, 그는 마침 《나뿔마호》 항공모함에 있었고 그의 비행기가 제임스·M·쇼후스턴의 비행기를 뒤따르면서 쇼후스턴의 비행기가 반향행 기폭탄에 명중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했다.



폭로

박해

연변박해소식

■ 최근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연길시신흥가녀파룬궁학원 3명이 연길시정법위원회에서 고용한 순라원의 감시와 추격을 받았다.

■ 연길시 대법제자 목극영(녀, 66세)은 2007년 1월 28일 밤 9시경에 대법진상자료를 배포하러 집에서 나간후 온밤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연길시 교통대방송에서 <한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 다음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목할머니를 확인했다. 가족들이 그의 시체를 검사하려고 할때 한 낯선 사람이 나서서 제지했다. 그의 시체에 옷을 입힐 때 얼굴에 어혈이 여러곳이나 있었다. 교통사고의 상세한 설명과 유관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유관인원들이 가족들을 억압하여 급급히 화장했다.

연길시 대법제자 목극영이 차사고로 사망했다는 결론에 대해 유관부문에서는 신입조사하여 다시 판정하기를 강렬히 요구한다.

(앞면의 연속)

대사가 대법제자가 되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후 리유보는 대학에서 강의 할때 파룬궁진상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파룬궁은 나라와 백성에게 리로우며 하나도 해로운 점이 없습니다.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백성을 해쳤고 나라도 해쳤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게 된 것은 나의 일생의 최대 행복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도 순정하고 심오하며 실제적인 파룬따파가 있음으로 하여 늘 감탄하곤 합니다. 연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만고의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시공

꺼꾸로 흐르는 시간

1. 현대 은전이 고대 묘당에 들어 있었다

1994년,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니라강변에서 제일 일찍 활동한 인류에 대한 과학고찰을 진행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 4천년 역사를 지닌 태양신모를 발견했고 한 돌비석밑에 깊이 파묻힌 은전 한잎을 파냈다. 이것은 이집트의 은전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현대판 은전이였다. 1997년도에 이 미국 현대판 은전을 사회에 유통시키려고 25달러를 준비해 미국 금고에 보전해 놓고 현재까지 유통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어떻게 그곳에 갔을까?

2. 한 비행사의 비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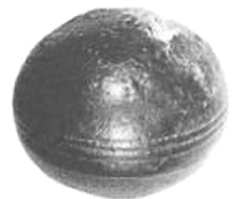
1971년 7월의 어느 하루, 옛 소련비행사 알렉산드러 스너브가 미그 21형 비행기를 몰고 비행할 때 부주의로 고대 이집트 상공에 들어섰다. 그는 일망무제한 사막에 우뚝 서있는 한 금자탑과 금방기초를 닮아놓은 금자탑을 보았다.

1982년, 한 북대서양비행사가 북유럽에서 비행할 때 그의 눈앞에 수백마리 공룡이 나타났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아왔던 것이였다.

사전문화

28억년전의 흙 패인 금속공

10여년전, 남아프리카의 광부가 오터스달 부근의 엽락 석광에서 금속공 몇백개를 파냈다. 이 금속공은 직경이 약 1인치이고 어떤 공은 가운데 고리형홈이 3줄이나 파여있었다. 이 금속공에 파인 홈은 28억년의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원모양을 보존했다.



지금 교과서에 인류가 문명시기에 들어선지 불과 1만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28억년전의 흙 패인 금속공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현대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문명이 나타나기전 지구에 지능이 높은 생물과 인류가 통치하는 세계가 존재했었다고 검증하였다.